• 1교시 언어 영역 •

1	③	2	⑤	3	②	4	①	5	②
6	④	7	⑤	8	②	9	①	10	⑤
11	④	12	③	13	③	14	④	15	②
16	①	17	③	18	③	19	④	20	①
21	④	22	⑤	23	⑤	24	③	25	③
26	⑤	27	⑤	28	④	29	②	30	①
31	①	32	④	33	④	34	②	35	①
36	④	37	①	38	①	39	⑤	40	②
41	①	42	④	43	⑤	44	④	45	④
46	①	47	③	48	④	49	④	50	①
51	⑤	52	⑤	53	④	54	④	55	②
56	①	57	④	58	②	59	①	60	②

〔듣 기〕

〈1번〉 이제 '꿀벌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여러분, 동물들도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오늘은 동물 중에서도 비교적 정확히 알려져 있는 꿀벌의 의사 소통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만약 꿀벌이 어딘가에서 꿀을 발견하면 벌집으로 돌아와서, 꿀을 찾아낸 장소나 거리를 춤으로 정확하게 알립니다. 자, 그림을 보실까요? 지금 설명 드리는 것은 유럽 꿀벌의 경우인데, 꿀을 발견하면 벌집으로 돌아와서 〈그림1〉처럼 8자형으로 춤을 춥니다. 8자형의 춤의 방향이나 각도로 꿀이 있는 곳의 방향이나 거리를 표현하죠. 그럼 〈그림2〉를 보실까요? 〈그림2〉는 꿀을 발견한 곳의 정보를 알리는 춤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2〉의 ㉠은 꿀을 찾아낸 곳의 방향이 태양의 방향과 같은 A지점일 경우에 추는 춤의 모양입니다. 이 때는 8자형 춤의 가운데 선이 수직으로 위로 향하도록 춤을 춥니다. 만약 꿀의 방향이 태양의 방향과 정반대인 B지점일 경우는 ㉡과 같이 8자형 춤의 가운데 선이 수직으로 아래를 향하도록 춤을 춥니다. 〈그림2〉의 C는 그 외의 경우를 한 예로 나타낸 건데, 만약 꿀이 태양 방향에서 왼쪽으로 80도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8자형 춤의 가운데 선이 중력의 수직선에서 왼쪽으로 80도 기운 모양의 춤을 위를 향해 춥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럼, 꿀을 발견한 곳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꿀이 있는 곳이 가까울수록 춤은 빠르고, 멀수록 춤은 느려집니다. 가령, 꿀이 있는 곳이 1500미터 일 때, 15초에 약 4번을 도는 정도입니다. 11킬로미터까지의 거리는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꿀을 찾아 왔더라도 벌집이 비어있으면 춤을 추지 않아요. 또, 꿀을 발견한 곳에서 벌집까지 우회해서 날아왔어도 꿀이 있는 곳의 방향과 거리를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1. 〔내용의 사실적 이해〕
〔출제의도〕 강연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꿀벌은 어디인가에서 꿀을 찾으면 벌통으로 돌아와서 춤을 춘다. 그러나 벌통에 돌아와 춘 춤을 멀리 있는 동료들까지 알아 볼 수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꿀벌은 ③과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2번〉 이번에는 대학 교수와 학생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2번 물음에 답하세요.

학생 : 교수님, 죄송하지만 강의를 좀 빠져도 되겠습니까? 제가 테니스 시합에 나가야 하거든요.
교수 :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건가, 아니면 자네가 가기를 원하는 건가?
학생 :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겁니다.
교수 : 자네가 안가면 어떻게 되지?
학생 : 아마 팀에서 쫓겨날 겁니다.
교수 : 그럼 자네는 팀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시합에 가려는 거군. 자네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팀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끌려 간다는 거지?
학생 :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혹시 제가 뭐 실수라도 한 건지, 아니면 강의에 빠지는 게 교칙에 어긋나는지요?
교수 : 그게 아니라,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는 핑계를 대지 말라는 말일세.
학생 : 그럼, 핑계를 대지말고 왜 가야하는 지 이치에 맞게 말하라는 건지요?
교수 : 아니, 가령 '나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어'라는 표현을 하지 말라는 거네. 이 말은 분위기나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강요하고 있다는 말이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행동을 선택할 자유가 없다는 말이지.
학생 : 아!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거지요?
교수 : 내 말은, 기분이나 여건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네.
학생 : 교수님, 전 기분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아시다시피 전 사람사이의 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도 많잖아요.
교수 : 허 참. 자네, 좀 전에 '저는 테니스 시합에 꼭 가야만 합니다'라고 말했지? 그리고 이유를 '팀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했지. 그 말에서 나는 자네가 적극적으로 테니스 시합에 나가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팀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가려 한다는 생각을 읽었네.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학생 : 아! 예. 알겠습니다.

2. 〔화자의 말하기 전략 파악〕
〔출제의도〕 화자의 말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교수는 학생이 팀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태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수는 적극적인 인간은 자신의 주체적 판단에 의해 행동해야 함을 충고해 주고 있다. 따라서 교수가 학생에게 원하는 태도는 ⑤이다.

〈3번〉 이제 교양 강연의 일부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그림에도 조예가 깊던 시인이자 소설가 이상(李箱)은 '삼국 시대 고분에서 그때 사람들이 콩나물 담아 먹고 밥 말아 먹던 그릇 몇 개 나왔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이상의 말은 우리 고미술품을 폄하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대단한 미술품이라고 하는 것 중엔 옛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쓰던 것, 그 때 사람들에겐 별로 대단할 것 없는 물건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후손들이 대단한 예술품으로 받들어 모실 물건 속에 있으면서 그걸 모르고 사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으로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가 늘 쓰는 물건과 사는 환경이 어떤 식으로든 미술과 관계되어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밥숟가락, 옷, 가구, 자동차, 건물 등, 그 모든 것이 빼어난 미술품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미술과 관계없는 것은 없습니다. '미술'은 공기처럼 우리 주위에 가득 들어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미술 혹은 미술 작품이 보통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특별한 사람들만 미술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다 미술품이란 그저 미술관이나 박물관 속에 들어앉아 밖으로 나오지 않는 신성한 것이라 그걸 만나려면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직접 찾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걸작, 명작으로 알려진 미술품들은 대부분 미술관에 모셔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절대 다수의 미술품들은 오히려 미술관 밖에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술관에 있는 위대한 걸작들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거나 그냥 지나치는 것은 미술이 우리와 너무 밀착되어서 미처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3. 〔강연의 중심 내용 파악〕
〔출제의도〕 강연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상(李箱)의 발언을 인용하여 위대한 미술품 역시 과거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물건임을 언급한 후 나아가 우리의 생활과 미술이 밀착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강연자는 미술이 평범한 사람의 일상과 친숙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4번〉 이제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열 아홉의 어린 나이에 장원 급제를 하여 스무 살에 파주 군수가 된 맹사성이 어느 날 무명 선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거만하게)스님이 생각하기에 이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최고로 삼아야 할 좌우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오?"
그러자 무명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지요.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건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이치인데 일부러 시간을 내어 온 내게 해 줄 말이 고작 그것뿐이오?"
하고 맹사성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자 무명 선사가 녹차나 한 잔 하고 가라며 붙잡았습니다. 그는 못이기는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찻물이 넘치도록 그의 찻잔에 자꾸만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스님, 찻물이 넘쳐 방바닥을 망칩니다."
맹사성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태연하게 계속 찻잔이 넘치도록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잔뜩 화가 나 있는 맹사성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찻물이 넘쳐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고, 지식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것은 어찌 모르십니까?"
스님의 이 한마디에 맹사성은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붉어졌고 황급히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틀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빙그레 웃기만 하였습니다.

4. 〔중심 내용의 적용〕
〔출제의도〕 이야기 속의 교훈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맹사성의 거만한 행동을 보고 찻물이 넘치도록 차를 따라 깨달음을 주려 하였으나 맹사성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겸손한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5번-6번〉 이번에는 토론의 일부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 두 물음에 답하세요.

사회자(여) :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고액 화폐 발행에 대해 두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박교수(남) : 고액 화폐의 발행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해도, 그것이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고액권은 수표와 달리 추적이 불가능해서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고액권을 발행한다면 지금보다 음성적인 자금의 흐름이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사회자 : 네, 고액권의 사용이 부패를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거군요. 김 교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교수(여) : 대개 고액권 발행을 반대하는 이유가 고액권이 부패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패는 부패 방지 제도로 막아야지, 경제적 거래 에 필요한 고액권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막는다는 방법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 원 권이 발행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물가는 10배, 경제 규모는 100배나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일상적인 거래마다 만 원 권으로 결제한다는 것은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수표를 현금처럼 쓰고 있는데, 쓸 때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은 자연스레 고액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합니다.
사회자 : 김 교수님께서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른 고액권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 만 원 권 한 장으로는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박 교수님,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교수 : 물론 그렇긴 해도 고액권은 제작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고액권이 발행되면 현금지급기나 자판기의 센서를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데 이 비용도 엄청날 겁니다. 또 고액권을 사용하게 되면 과소비를 조장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하면 일상의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고액권 발행으로 얻게 되는 특별한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자 : 박 교수님께서 고액권 발행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김 교수님, 고액권 발행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는 없겠습니까?
김교수 : 예, 경제적 효과를 따져본다면 오히려 고액권 발행은 시급한 일입니다. 고액권의 초기 발행 비용은 1회용인 수표보다 더 들지만 한번 발행하면 4년 이상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행되는

10만원 권 수표가 10억장 규모인데, 수표를 발행하고 처리하는 데 연간 6,000억이라는 비용을 쏟아 붓고 있어요. 더 이상의 낭비는 막아야 합니다.

5.〔공통점 파악〕
〔출제의도〕 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김교수는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교수는 김교수와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고액권 발행 자체를 부정하는 논조는 아니다. 다만 그는 지금 현실상 고액권 발행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②이다.

6.〔사회자의 역할 평가〕
〔출제의도〕 토론에서 사회자의 역할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사회자는 김교수와 박교수의 발언이 있은 후 바로 이어받아 내용을 요약한 후 다른 토론자에게 논쟁점을 물음으로써 논쟁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여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토론에서 사회자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④이다.

〔쓰 기〕

7.〔글쓰기 주제 파악〕
〔출제의도〕 만화의 내용에 어울리는 적절한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만화의 내용은 임금의 약점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인식되도록 그린 화가의 기발한 착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만화의 주제로는 ⑤가 적절하다. 나머지는 모두 부분적인 연관성은 있으나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하다.

8.〔창의적 표현〕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신문의 표제어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기사 내용의 핵심은 '한마당'이라는 동아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상의 영예를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조적 이미지와 출품작 '비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구체화시켜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는 ②가 알맞다. ①은 어려운 여건의 의미가 약화되고 있으며, ③과 ⑤는 기사 내용의 핵심이 '우리 춤'으로 되어 있고, ④는 대조적 이미지가 없다.

9.〔논지 전개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 추론〕
〔출제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논지 전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자료의 내용은 고학력자가 다시 전문대에 입학하는 학력U턴 현상이 심화됨을 지적하고 있다. 논지 전개 과정으로 보아 이런 현상의 원인을 취업난,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학의 경직된 인력 양성 제도, 특정 계열 기피 현상에 있음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①은 적절한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 대학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은 원인 분석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

10.〔단어의 의미 파악〕
〔출제의도〕 순우리말의 의미를 문장 속에서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시나브로'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뜻이므로 ⑤와 같이 '일이 힘드니 시나브로 하세요.'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11.〔개요 수정〕
〔출제의도〕 개요를 작성한 후 새롭게 접한 글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개요에서는 출산율 저하 문제의 실태와 심각성 및 원인과 대책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문제의 원인으로 개인주의의 심화, 이혼율의 증가, 자녀 양육비의 증가를 꼽고 있는데, 양육비의 경우는 글감 A와 같이 사교육비의 증가가 중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④와 같이 무상교육의 확대 실시는 단기적 차원의 대안으로 부적절하며, 지방 자치 단체의 우수 인재 장학금 지원은 인재 육성 차원의 정책이지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12.〔문장 표현의 오류 파악〕
〔출제의도〕 문장에서 적절치 못한 표현상의 오류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는 '아무 생각 없이'와 '무심하게' 부분이 의미상 중복되고 있다.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③이다. '여생(餘生)'이라는 말 속에는 '남아 있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13.〔고쳐 쓰기의 오류 파악〕
〔출제의도〕 주어진 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고쳐쓰기에 대해 토의한 내용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주어진 계획에 비추어 볼 때, 첫 번째 문단의 끝 부분에 있는 미래 산업의 대중 진화성을 언급한 내용과, 두 번째 문단의 끝 부분에 있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지적한 문장은 전체 주제와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창조, 가름, 계발'은 문맥상 적절한 어휘가 아니므로 '창출, 가늠, 개발' 정도로 바꾸어 주는 것이 좋으며, 문장 구성의 계획에 따라 '한류 열풍'을 소개하는 내용은 글의 맨 앞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빈번하고 잦아지다', '기르고 육성하다'는 잉여적 표현이므로 어느 하나를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③과 같이 문장이 길어 끊어주어야 할 필요는 없는 글이다. 비교적 간결하게 의미 전달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14.〔비유적 표현〕
〔출제의도〕 유사성을 근거로 한 적절한 비유의 타당성을 찾는 문제이다.
〔해설〕 '능률적인 학습 방법에는 어떤 방법 것이 있는가.'라는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비유로 연결된 것 중에서 유사성이 떨어지거나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④이다. 등대가 어둠 속에서 뱃길을 안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면 '목표 설정 학습'과는 연결이 적절치 않다.

〔현대 소설〕

□ 출전 : 이문열, '금시조'
15.〔내용의 추리〕
〔출제의도〕 소설을 읽고 사건의 전개과정이나 인물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해설〕 고죽은 스승과 예술관이 달랐고 그 결과 자신만의 예술적 성취를 위해 노력한 점은 드러나나 ②와 같이 스승의 곁을 떠났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16.〔인물의 심리 파악과 적용〕
〔출제의도〕 소설을 읽고 인물의 행위 속에 담긴 심리를 다른 장르에 적용하여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해설〕 이 소설의 주인공인 '고죽'은 자신의 작품들을 분류하면서 자신이 이루려고 했던 예술세계에 부합하는 작품이 단 한 편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로 인해 고죽은 절망하게 된 것이다. ①은 오랜 시간 자신이 추구했던 노력이 세속의 번뇌로 인해 성취되지 못한 절망감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심리가 유사하다.

17.〔대사의 내포적 의미 파악〕
〔출제의도〕 소설을 읽고 인물의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해설〕 이 소설에서 '고죽'은 자신의 작품을 불태우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그토록 원했던 만족스러운 예술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의 수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백시'나 '난초' 같은 데서는 기교만 닮았으므로 부정한 것이나, 석담의 눈을 갖게 되면서 왼편으로 작품을 놓게 되었다는 점에서, 또는 자기류는 자신만의 경지인데, 스스로를 교졸함과 천격함으로 평가한다는 부분 등에서 이를 잘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18.〔인물의 행위 비판〕
〔출제의도〕 소설을 읽고 특정한 관점에서 인물의 행위를 비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의 관점은 예술가가 창작한 예술품의 평가는 작가가 아니라 일반 대중의 몫이라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자신의 작품을, 그것도 오랜 기간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아왔던 작품들의 예술적 가치를 창작자가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느냐는 관점이 〈보기〉의 적절한 비판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정답은 ③이다.

19.〔문맥을 통한 단어의 의미 유추〕
〔출제의도〕 소설을 읽고 주요한 어휘의 내포적 의미를 유추하는 문제이다.
〔해설〕 고죽은 자신의 평생 작품 하나하나를 엄정히 평가하면서 스스로 자평(自評)을 내리고 있는데, 문맥을 고려하여 그 자평의 의미를 유추할 때 가장 타당한 것은 ④이다. 왜냐하면 전후 관계로 볼 때, 고죽은 평생 자신만의 기교를 발전시켰으나 그 속에 정신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을 실토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현대시〕

□ 출전 : (가) 신동엽, '봄은'
(나) 황동규,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다) 곽재구, '새벽편지'

20.〔작품의 공통점 파악〕
〔출제의도〕 작품간의 공통점이 무엇인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해보는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가)는 통일에 대한 염원이 들어 있고, (나)는 이상적인 삶을 향한 전진 의욕과 소망 의식이 들어 있으며, (다)는 밝아올 아침의 따뜻하고 향기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②는 (다)에서 부분적으로 연관되고 있으나, (나)에서는 찾아 보기 어렵고, ③은 (다)에서 수미쌍관에 의한 반복적 표현이 있고, (나)에선 부분적인 반복이 있으나, (가)에선 두드러진 반복적 표현을 찾기가 어렵다. ④는 (가), (나)와는 거리가 멀고, ⑤는 (가)와는 관련이 있으나 (다)와는 거리가 멀다.

21.〔작품 내용의 감상〕
〔출제의도〕 화자의 발화 의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감상을 하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가)에서 모두가 꿈꾸는 세계인 '봄'은 외부(남해, 북녘, 바다, 대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개개인의 의지와 실천 의지에 의해 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④가 정답이다.

22.〔작품의 핵심 내용에 대한 이해〕
〔출제의도〕 잘못된 작품 이해에 대한 타당한 조언을 찾는 문제이다.
〔해설〕 (나)는 바퀴의 본질적인 속성이 굴러가는 것임에 착안하여, 부지런히 굴러가야 할 바퀴처럼 우리 삶의 세계도 당연히 굴러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시로서 시대적 상황과 아픔이 바탕에 내재되어 있다. 즉, 바퀴는 굴러가야 하는 것이 그 소임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정체요, 퇴보라고 할 수 있다. '싶어진다'는 소망형 종결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인의 이상주의적 전진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기 A〉의 학생들의 감상은 바퀴의 모양을 중심으로 모난 인간 관계의 측면에서만 이해하고 있지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에서는 벗어나 있으며, 지나치게 비약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⑤와 같은 관점 역시 본문에서 유추해 내기는 어려우며, 〈보기 B〉의 관점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진 해석이므로 학생들의 감상을 바로 잡아주는 올바른 조언이라고 볼 수 없다.

23.〔시어의 기능 비교하기〕
〔출제의도〕 동일한 제목과 제재의 시에서 동일 시구의 시적 기능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다)는 화자가 새벽의 별을 보면서 미래 삶에 대한 희망의 자세를 거듭 다지고 있다. '새벽'은 가슴의 뜨거움을 나누는 시간이고, 사랑과 희망의 샘이 출렁이는 시간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을 통해 다지게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보기〉의 ㉮는 화자가 죽음보다 괴로운 처절한 그리움을 갖도록 만드는 외로운 상황 속에서 오늘도 홀로 돌아설 수 밖에 없는 처지를 더욱 처연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①도 부분적으로 관련성은 있으나 ㉠이 시상이 집약된다기보다는 수미쌍관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도 시상이 전환된다는 측면보다는 일관되게 흐르는 화자의 정서를 여운적으로 처리하면서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24.〔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출제의도〕 핵심적인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여 이를 그 과정의 정리가 적절한가를 문제이다.
〔해설〕 ③의 '길'은 '이어짐→인연'이 아니라, '펼쳐짐→지향'의 의미가 강하다. ①, ②, ④, ⑤는 모두 전체 작품의 흐름으로 볼 때 관련성이 있으며 나름의 타당한 이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답은 ③이다.

〔고전 시가〕

□ 출전 : 이달, '불일암 인운 스님에게'
김수장의 시조
송순, '면앙정가'

25.〔작품의 공통점 파악〕
〔출제의도〕 작품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해보는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가)시에서는 흰구름에 절이 파묻혀 있는 고요한 정경을 그리고 있으므로 자연 속에 묻혀 지내는 삶을 나타낸다. (나)시는 암자에 앉아서 음악과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한 삶을 그리고 있으므로 또한 자연에 묻혀 사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다)시에서는 현실에서 물러나 자연에 몰입하여 산과 강을 두루 돌아다니며 즐기는 인생을 그리는 것으로 보아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삶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답은 ③이다.

26. 〔시의 형상화 방법 이해〕
〔출제의도〕 작품의 형상화 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묻는 문제이다.
〔해설〕 시적 형상화 방법이라는 것은 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적인 측면을 말한다. 그러므로 시의 표현상, 서술상으로 드러나 있는 구체화 방법을 찾는 문제로 볼 수 있다. ①은 '흰구름', '송화'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으며, ②는 '송화가 하마 쇠었네.'라는 구절에서 느낄 수 있으며, ③은 고요한 산사를 그리고 있는 시의 정경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④는 분위기가 고요하고 흰구름이 절을 감싸고 있는 측면에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⑤는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한 흔적이 없다. 따라서 답은 ⑤이다.

27.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은 자연 속에 묻혀사는 즐거움'을 뜻한다. 따라서 이와 뜻이 통하는 것은 ①, ②, ③, ④이다. ⑤는 '임금의 은혜(역군은)'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관계성이 떨어진다.

28. 〔시적 화자의 모습 추리〕
〔출제의도〕 시적 자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시적 화자가 직접 행한 행동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묘사하여 마치 행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곳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져츠락 을프락 픠람ᄒᆞ락 노혜로 놀거니'에서 휘파람을 불며 마음껏 노는 모습을 알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모두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따라서 답은 ④이다.

29. 〔시어의 기능 파악〕
〔출제의도〕 시어의 기능을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가)의 '송화'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시적 소재이다. 〈보기〉의 '바위' 역시 오랜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답은 ②이다.

〔고전 산문〕

□ 출전 : 작자 미상, '옹고집전'

30. 〔서술상의 특징 〕
〔출제의도〕 작품 전체의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해설〕
①은 '서술자'가 미래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작중 인물(허옹가)'이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는 장면 전환이 여타 고전 소설에 비해 잦은 편이며, ③은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인 과장과 해학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④는 '-것다', '-보세' 투의 서술자 개입을 통해 청중에게 작중 상황을 설명해 주는 투가 나타나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는 권선징악과 효행 등의 덕목을 실옹의 신분 추락과 회복을 통해 강조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31. 〔글의 내용 추리〕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추리하는 내용이 타당한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답은 ①이다. ②는 도사가 실옹을 꾸짖는 대목에서, ③은 실옹의 신분이 추락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④는 태몽을 풀이해 주는 대목을 통해, ⑤는 실옹이 쫓겨난 뒤 집으로 돌아올 때 하인에게 박대당하는 대목을 통해 각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①에 대해서는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2. 〔상황에 적합한 표현〕
〔출제의도〕 작중 인물의 처지를 표현하기에 적적한 속담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실옹이 허옹에게 패해 쫓겨난 상황을 고려한다면 답은 ④이다. 적반하장이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실옹의 처지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말이다.

33. 〔어휘의 서사 기능 이해〕
〔출제의도〕 어휘의 서사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부적'은 사건을 마무리하고 결정하는 주술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매개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보기〉의 예시는 '노래'이다. 이 노래로 인해 변괴가 사라지고 갈등이 해소되었으므로 부적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34. 〔인물의 평가〕
〔출제의도〕 작중 인물의 유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실옹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울고 웃는 인물이다. 집에서 쫓겨났을 때는 신세 한탄을, 도사에게 목숨을 구걸할 때는 비굴한 태도를,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기뻐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답은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이라고 한 ②이다.

〔수필〕

□ 출전 : 유안진, '쇠붙이와 강철 시대의 봄을 맞으면서'

35. 〔필자의 궁극적 의도 파악〕
〔출제의도〕 글의 궁극적인 목적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해설〕 이 글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기계문명에 의해 손상된 인간 본성의 회복을 염원하는 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36. 〔어휘의 내포적 의미 파악〕
〔출제의도〕 대상의 내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해설〕 '나무'와 '강철'의 내포적 의미를 파악해 보면 서로 대립적이다. 두 가지가 각각 농경 사회와 산업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나무'의 속성을 유연, 인정, 부드러움, 자연으로 파악할 수 있고, '강철'의 속성을 '경직, 냉혹, 날카로움, 인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④와 같이 소멸과 영원의 관계는 전체적인 주제 의식이나 분위기로 볼 때 적절한 관계는 아니다.

37. 〔어휘의 문맥적 의미의 파악〕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바꾸어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해설〕 문맥으로 볼 때 '잊어 가는'은 자신이 가진 본래의 성질을 '망각하는'의 의미이고, '잃어 가면서'는 자신이 지켜야할 성질을 '상실해 가면서'라는 뜻으로 풀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38 〔현실 인식의 파악〕
〔출제의도〕 글쓴이의 현실 인식을 다른 장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 글의 글쓴이는 기계 문명의 비정함이 인간의 따뜻하고 인정적인 본성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순수한 인간성의 옹호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①이 정답이다.

〔사회 제재〕

□ 출전 : 전국국어교사모임, 『우리말 우리글』

39. 〔논지 전개 방식 파악〕
〔출제의도〕 글의 논지 전개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현상을 분석하여 대비적으로 보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미지의 개념을 정리한 후, 이미지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대비적으로 분석하고, 마지막 단락에서 주체적으로 이미지를 수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답은 ⑤이다.

40. 〔다른 상황에의 적용〕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여 핵심 내용을 다른 경우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 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제시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를 적용하는 문제이다. ②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현실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회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양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이므로 현실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성격이 강한 관계로 이미지가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전제와 맞지 않다.

41. 〔글쓴이의 의도 추리〕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를 비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미지의 부정적 측면 중에 소비자가 광고의 이미지에 의해 연출된 삶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여 현실과 다른 환상적인 행복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다. 이를 이용하여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 한다는 ①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답항은 본문의 내용이나 주제를 바탕으로 비판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42. 〔다른 상황에의 적용〕
〔출제의도〕 글의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글쓴이의 입장 및 태도를 추리해 보는 문제이다.
〔해설〕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이라는 요괴의 실체(본질)을 알면서도 들려오는 노랫소리라는 허상(현상)을 접했을 때 갈등하는 모습을 통해 이미지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능력, 즉 이미지를 바르게 읽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함을 적용해 보는 문제이다. ③은 이미지 그 자체이며, ④의 세이렌은 이미지의 실체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가 아니다.

〔언어 제재〕

□ 출전 : 고종석, 한글 언어학적 호사의 극치

43. [세부 정보 이해]
〔출제의도〕 지문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①은 한글은 소리를 중심으로 만든 글자이므로 오답이고, ②는 '한글의 자음은 기본자를 '가획'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로, ③은 '소리나는 위치는 같으므로 틀렸다. ④는 영어나 로마자는 글자 모양과 소리값이 관련을 맺지 않고 있으므로 오답이다. ⑤는 3문단에 '음소 단위의 분석에 나아가 자질 문자로 나눌 줄 알았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답은 ⑤이다.

44. 〔핵심 정보 파악〕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된 논지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본문에서 필자는 한글의 우수성의 근거로 모음 소리값의 일정, 모음의 생성 방식의 체계성, 자음의 형태와 소리값의 계열화 및 조음 기관을 본뜬 자음의 생성 방식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④와 같이 자음과 모양의 모양이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진술은 사실성에서도 어긋나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45. 〔뒷받침 사례 적절성 파악〕
〔출제의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한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은 글자의 모양과 음가가 연계되어 있는 사례를, ㉡은 가획의 또 다른 사례를, ㉢은 모음의 기본자가 어떤 원리로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 사례를, ㉣은 모음이 축약될 경우의 예를 든 것이다. 그러나 ㉤은 'ㅣ'와 'ㅡ'를 결합하여 생성되는 경우는 없고, 'ㆍ'와 'ㅏ'를 결합된 말은 없다. 그러므로 답은 ④이다.

46. 〔심화 내용의 적절성 파악〕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심화 활동이 적절한가를 문제이다.
〔해설〕 ②는 한글의 우수한 점 이외에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활동, ③은 한글의 운용 원리와 다른 나라의 운용 원리를 비교해 보는 활동, ④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찾아보는 활동, ⑤는 한글의 우수성을 국외에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은 모두 본문을 근거로 한 심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①의 '한글의 보급 방식과 전파 경로'는 본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바른 심화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과학 제재〕

□ 출전 : 최성우, 『상상은 미래를 부른다』

47. 〔사실적 정보의 파악〕
〔출제의도〕 이 글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답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노화에 대한 의학적 정의는 나타나 있지 않다.

48. 〔원리의 적용〕
〔출제의도〕 이론의 원리를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A의 원리는 활성 산소의 축적으로 세포의 노화가 진행되는 현상으로서 이는 유해한 물질의 축적으로 인해 제품이 마모되거나 소모되거나 닳아 없어지는 성질을 말한다. ①은 스트레스가 해소되므로 닳아 없어지는 특성은 아니다. ②는 이자가 늘어나는 측면이 어긋났으며, ③은 땀이 많이 흘리는 것은 축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는 불순물이 쌓이는 것이 축적이며 고장이 자주 나는 것은 제품이 마모되었기 때문이다. ⑤는 연료 소비량이 늘어난 것은 소모, 마모의 성격과 거리가 멀다. 정답은 ④이다.

49.〔반응의 적절성 파악〕
〔출제의도〕 내용으로 미루어 볼 수 있는 독자의 반응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동물의 노화방지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글쓴이는 '의문이다'라고 서술하여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④는 동물의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해야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므로 필자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한 독자의 반응으로 부적절하다.

50.〔세부 내용을 추리〕
〔출제의도〕 세부 내용을 미루어 추리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정상 세포는 텔로미어가 점진적으로 소실되어 결국 세포가 정지된다. 하지만 암세포는 텔로메라제 효소가 텔로미어의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여 죽지 않는 세포가 된다. 그러므로 답은 ①이다.

〔예술 제재〕

□ 출전 : 채희완, 멋과 신명의 소맷자락

51.〔 사실적 정보의 확인〕
〔출제의도〕 본문을 읽고 대상의 특성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정답은 ⑤이다. ①은 셋째 문단의 한국춤의 자유분방함은 엇박을 탄다는 대목에서, ②는 네번째 문단에서 한국춤의 선은 버선발의 선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다는 부분에서, ③은 둘째 문단에서 한국춤의 묘미는 긴장과 이완의 속성을 지닌다는 부분에서, ④는 한국인은 일회성을 즐기는 속성이 있다는 다섯째 문단의 진술에서 잘 나타나 있다.

52.〔핵심 정보의 적용〕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문맥적으로 볼 때, ㉠은 한국적 해학으로서의 파격을 의미한다. 이런 속성을 판소리계 소설인 〈춘향전〉에서 찾으면 해학성이 두드러진 부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춘향이의 처지를 고려하여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다소 어긋난 대화로 웃음을 유발하는 ⑤가 정답이다.

53.〔다른 상황에의 적용〕
〔출제의도〕 한국 춤의 특성을 연극적 요소에 적용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본문에서 한국의 미적 심성으로 일회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기〉의 내용은 연극도 일회성과 즉흥성을 바탕으로 연기자가 연기를 이끌어 가는 특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답은 ④이다.

54.〔문맥적 의미 파악〕
〔출제의도〕 핵심적 어구의 의미를 문맥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부분은 한국 춤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 춤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예술적 안목과 수준을 가져야만 춤을 제대로 출수도 있고 감상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④이다.

55.〔작품의 종합적 감상〕
〔출제의도〕 한국 춤의 특성을 주어진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우리 춤은 같은 동작을 되풀이하는 점을 재미없어한다는 진술로 볼 때, 다음에 반복될 동작을 예상할 수 있어 정교함이 느껴진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정답은 ②이다.

〔인문 제재〕

□ 출전 : 차하순, 역사가의 사명

56.〔글의 전개 방식 이해〕
〔출제의도〕 필자가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한 서술상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본문은 '역사가의 사관'이라는 추상적 문제를 '지도'와 '여행자', '통나무 속의 디오게네스', '환관의 객관성', '흠 잡을 데 없는 완성품' 등과 같은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57.〔필자의 궁극적 의도 파악〕
〔출제의도〕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본문은 역사가는 문제 의식을 갖고 역사를 바라보는데, 이 문제 의식이 사관이며, 사관 형성의 요건으로 정직성과, 금욕주의, 현실의 관점에서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안목 등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결국 본문은 올바른 사관을 갖기 위한 역사가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정답은 ④이다.

58.〔문맥적 의미 파악〕
〔출제의도〕 다의어의 의미를 문맥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의 문맥적 의미는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의 뜻으로 쓰였다. 따라서 이런 의미를 지니는 것은 ②이다. ①은 '무엇을 보는 표적이나 태도'의 뜻이고 ③은 '사람들의 눈길'이고, ④는 '시력'을, ⑤는 '눈동자'의 뜻이다.

59.〔주어진 자료의 관점 파악〕
〔출제의도〕 본문의 관점을 토대로 주어진 자료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은 역사적 사실이 과거의 사실로 객관화된 랑케의 사관을 비판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관점을 보이고 있는데, 〈보기〉의 글도 이런 점에서 유사하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60.〔내용의 적용〕
〔출제의도〕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한 후 이를 유사한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는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을 설명한 글이다. 이와 유사한 과정이 본문에서 사관의 변화를 다룬 부분이다. 글의 내용으로 볼 때 패러다임의 변화는 정상 이론이 새로운 이상 현상의 출현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런 성격을 사관의 변화에 적용하면 기존 사관이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정답은 ②이다.